선재국어 2017 법원직 9급 정답&해설

1. **정답** ③

해설

(가) <서경별곡>은 대동강을 배경으로 남녀 간의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고려 가요이고, (나)는 떠난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심정과 회한을 노래한 황진이의 시조이다. (가)는 "구스리 바회예 디신ᄃᆞᆯ 긴힛ᄯᅳᆫ 그츠리잇가(구슬이 바위 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에서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임에 대한 화자의 영원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긴(끈)'은 임과 화자의 사랑을 이어 주는 매개체로 사랑의 영원함을 비유하는 소재이다. (나)는 "그릴 줄을 모로던가(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에서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떠나보낸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2. **정답** ③

해설

(가)의 화자는 3연에서 "네 가시 럼난디 몰라셔 ᄇᆡ예 연즌다 샤공아(네 아내가 음란한 줄도 몰라서 다니는 배에 몸을 실었느냐 사공아)"라며 엉뚱하게도 사공을 비난하고 있다. 이는 이별에 대한 두려움, 원망, 질투의 감정을 임을 배에 태워 대동강을 건네 줄 사공에 대한 원망으로 돌려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가)의 화자는 배를 띄우는 사공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지, 사공에게 임을 잘 모셔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3. **정답** ②

해설

(나)의 "제 구틔야 /보내고 그리ᄂᆞᆫ 정(情)"으로 보아, 화자는 임을 떠나보낸 뒤, 이를 후회하며 임을 그리워하는 상황이다. ②의 화자는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바람이 불어 떨어지는 잎을 임인가 착각하는 안타까운 기다림을 드러내고 있다. (나)와 ②의 화자 모두 임과 헤어진 상황에서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4. **정답** ③

해설

정철의 <속미인곡>은 임을 그리워하는 여성 화자를 내세워 임금에 대한 충정을 노래한 가사로, 두 여성의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추일(秋日) 동천(冬天)은 뉘라셔 뫼셧ᄂᆞᆫ고"는 "가을날과 겨울날은 누가 (임을) 모셨는가?"라는 뜻이다. ㉢의 앞뒤 구절을 살펴보면, 봄과 여름에는 임이 어떻게 지내는지, 자릿조반과 아침저녁 진지는 어떤지 등 임의 안부를 걱정하는 말들이 나열되어 있다. 따라서 ㉢ 역시 여인이 임의 안부를 걱정하는 말로 볼 수 있다. 자신은 지금 임의 곁에 없지만 임의 곁에 있는 사람이 임을 잘 모시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 임의 안위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는 말이지, 자신 대신 임을 모시는 사람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다.

5. **정답** ③

해설

㉮와 ㉯ 모두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낙월(落月: 지는 달)'은 잠깐 동안 임을 보다 사라지는 것이므로 임에 대한 화자의 소극적 사랑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 '구즌비(궂은비)'는 오랫동안 내리며 임의 옷을 적실 만큼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므로 임에게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 적극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 비해 ㉯가 임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을 드러낸다.

6. **정답** ②, ③

해설

이 작품은 '껍데기'로 상징된 모든 부정적 존재들이 사라지고 통일과 화합의 시대가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노래한 시이다. 〈보기〉에 따르면, (가)에서 '알맹이'는 4 · 19 혁명의 순수한 정신을 의미하므로, 이와 대립되는 '껍데기'는 4 · 19 혁명의 순수한 정신을 가리는 부정적 대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 '껍데기는 가라'는 4 · 19 혁명의 순수한 정신을 가리는 모든 부정적 세력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또한 3연을 보면, 아사달과 아사녀가 "㉢부끄럼 빛내며" 맞절하는 곳은 '중립(中立)의 초례청'이며, 그곳은 '껍데기'가 사라진 곳이다. 따라서 ㉢의 '부끄러움'은 이념의 대립을 뛰어넘은 화합의 장에서 빛나는 우리 민족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7. **정답** ②

해설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는 당대의 억압적인 군사 독재 현실을 배경으로 자유로운 세계에 대한 화자의 갈망과 좌절을 형상화한 시이다. 화자는 영화를 보기 전 애국가를 들으면서 화면 속 흰 새떼들이 낄낄대면서 자기들의 세상을 ㉮ '이 세상'에서 떼어 매고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자신도 ㉯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영화를 볼 때조차 애국심을 강요당하는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현실인 ㉮ '이 세상'에서 벗어나 ㉯ '이 세상 밖'의 자유로운 세계로 가고 싶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8. **정답** ④

해설

(나)의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 주저앉는다"는 자유로운 세계를 소망하지만 억압적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화자의 체념과 좌절감을 나타낸다. 따라서 (나)의 화자가 부정적 현실과 맞서 싸운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나)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9. **정답** ③

해설

(가)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은 절대적 미(美)의 세계를 '모란'에 빗대어 소망의 추구와 상실감을 형상화한 시이다.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행위, 모란이 진 후 상실감으로 우는 행위 등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인 절대적 미(美)의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나) 김수영의 <눈>은 '눈'과 '가래'의 대립적 시어를 통해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형상화한 시이다. 기침을 하는 행위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인 순수, 정의 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 행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낸다는 ③이 공통점으로 적절하다.

10. **정답** ③

해설

㉠'봄'은 화자가 절대적으로 소망하는 '모란'이 피었다가 지는 계절이다. 따라서 ㉠은 모란이 피었을 때는 화자에게 기쁨을, 모란이 졌을 때는 화자에게 슬픔을 주는 시간이다. ㉡'밤'은 화자가 기침을 하여 가슴의 가래를 뱉는 시간이다. 즉 ㉡은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는 화자의 고뇌와 의지가 나타나는 시간 혹은 부정적 현실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 '봄'은 화자에게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시간이지만 ㉡ '밤'은 그렇지 않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11. 정답 ②

해설

합성어의 형성 방법에 대한 문제이다. ㉠ '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의 배열 방식이 통사적 구성과 일치하는 합성어로, '새해(관형어+체언)', '힘들다(조사 생략)', '돌아가다(어간+연결 어미+어간)'가 이에 해당한다. ㉡ '비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의 일반적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지 않는 합성어를 말하는데, '접칼(관형사형 어미의 생략)', '부슬비(부사+명사)', '오르내리다(연결 어미의 생략)'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 2>를 ㉠과 ㉡으로 맞게 분류한 것은 ②이다.

12. 정답 ④

해설

이용악의 〈그리움〉은 내리는 눈을 보며 고향의 가족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애틋한 마음을 노래한 시이다. 화자는 고향에 눈이 내리는 광경과 검은 지붕의 화물차가 고향으로 향하는 상상을 하고 있다. 따라서 '눈'과 '화물차의 검은 지붕' 모두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과 관련된 소재이다. 따라서 이 둘의 색채 대비를 통해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다.

13. 정답 ③

해설

겹받침 'ㄺ'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해야 하지만,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밟다'의 표준 발음은 [밥:따]이다.

오답 풀이

① 깨끗이[개끄치](×) → [깨끄시](○):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받침 소리를 연음하므로, '깨끗이'는 [깨끄시]로 발음해야 한다.

② 신문[심문](×) → [신문](○): '신문'을 [심문]으로 발음하는 것은 혀끝소리인 'ㄴ'이 양순음인 'ㅁ'에 동화 되어 양순음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양순음화는 모두 비표준 발음이다.

③ 읽지[일찌](×) → [익찌](○): 겹받침 'ㄺ'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하므로, '읽지'는 [익찌]로 발음해야 한다. 용어의 어간 말음 'ㄺ'은 'ㄱ' 앞에서만 [ㄹ]로 발음한다. 예 읽고[일꼬]

14. 정답 ①

해설

앞뒤 문맥을 통해 생략된 접속어를 추리하는 문제이다.

㉮ 앞에는 우주 만물을 주재하는 궁극의 존재가 '하늘'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뒤에는 우주 만물에 적용되는 원리가 '하늘의 길'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앞의 내용에 근거하여 뒤의 내용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에는 '그래서'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 앞에는 천문 현상은 하늘이 사람에게 바른 도리를 알려 주는 상징적 현상이라는 내용이, 뒤에는 천문 현상을 잘 살펴 사회를 올바르게 운영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앞의 내용에 근거하여 뒤의 내용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에는 '그러므로, 그래서' 등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 앞에는 천인감응은 제왕에게만 해당된다는 내용이, 뒤에는 천인감응이 제왕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에 대해 송나라의 유학자들이 의문을 가졌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으므로 ㉰에는 '그런데'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15. 정답 ③

해설

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두 번째 단락에서 '우월성 추구'라는 중심 대상의 개념을 밝힌 후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서 '우월성 추구'의 특징 다섯 가지를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오답 풀이

① 제시문에는 '우월성 추구'라는 개념과 관련된 실제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④ '우월성 추구'라는 하나의 개념에 대한 아들러의 설명만 제시되어 있다. 즉 '우월성 추구'를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관점(아들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16. 정답 ②

해설

제시문과 일치하는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두 번째 단락에 "우월성의 추구는 모든 사람의 선천적인 경향성",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월성 추구의 노력은 인간을 현 단계에서 보다 넓은 단계의 발달로 이끌어 준다"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모든 인간은 우월성 추구의 경향성을 타고나며 이 때문에 인간은 현재보다 나은 상태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②이다.

오답 풀이

① 네 번째 단락의 "넷째, 우월성의 추구는 많은 힘과 노력을 소모하는 것이므로 긴장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한다"와 배치된다.

③ 네 번째 단락에서 우월성의 추구가 "개인의 우월성을 넘어서" 사회적 관심을 추구하면 "건강한 성격"을 지니지만, 개인적 우월성만을 추구하면 신경증적 증상으로 본다고 하였다. 즉 우월성의 추구가 건강한 성격으로 발현되려면 개인의 우월성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치하지 않는다.

④ 네 번째 단락의 "다섯째, 우월성의 추구는 개인 및 사회 수준에서 동시에 일어난다"와 배치된다.

17. 정답 ③

해설

글쓴이의 서술 방식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21세기의 사회는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 변모했지만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열망이 사회적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보이며, 규율 사회의 당위의 부정성보다 성과 사회의 능력의 긍정성이 생산성 향상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관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비록 외적 지배 기구에서는 자유롭지만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스스로를 강제하고 착취하는 성과 주체들의 상태를 "역설적 자유"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글쓴이는 현대 사회를 성과 사회로 보는 관점에서 성과 주체들에게 나타나는 자기 강제, 자기 착취의 현상을 "역설적 자유의 병리적 표출"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오답 풀이

① '통념'이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널리 지니고 있는 생각이나 관념 등을 의미한다. 글쓴이는 통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②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 변모한 현대 사회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이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다.

④ 통시적 서술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과정을 서술한다는 뜻이다. 제시문에는 현대 사회가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 변모했다는 현실 인식이 드러나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의 변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어 있지 않다.

18. 정답 ①

해설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세 번째 단락의 "그렇다고 능력이 당위를 지워버리는 것은 아니다. 성과 주체는 규율에 단련된 상태를 유지한다. 그는 규율 단계를 졸업한 것이다"를 통해 성과 주체가 복종적 주체가 지닌 규율에 단련되고 규율을 내면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과 주체를 복종적 주체가 지닌 규율, 즉 당위의 명령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세 번째 단락의 "능력의 긍정성은 당위의 부정성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따라서 사회적 무의식은 당위에서 능력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성과 주체는 복종적 주체보다 더 빠르고 더 생산적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마지막 단락에서 성과 주체는 외적 지배 기구에서는 자유롭지만,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스스로의 의지로 자기 착취로까지 치달을 정도의 강한 노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글쓴이는 이러한 상태를 자유와 강제가 일치하는 상태, 강제하는 자유, 자유로운 강제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세 번째 단락에서 능력의 긍정성(성과 사회)보다 당위의 부정성(규율 사회)이 생산성 향상에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무의식이 당위에서 능력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게 되었다고 하였다.

19. 정답 ④

해설

글의 내용을 〈보기〉에 적용하여 바르게 해석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보기〉에 제시된 소설의 주인공 바틀비는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감옥 같은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점, 신경성 질환에 시달리며 일한다는 점, 변호사의 작업 지시에 따라 일한다는 점에서 제시문에 나타난 규율 사회의 '복종 주체'의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바틀비를 과중한 자아 부담을 스스로 거부하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바틀비는 노동을 강요하는 외적 지배(변호사의 지시)의 영향 아래 일한 것이지,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작업 지시를 거부하다 해고되기를 선택하는 바틀비의 모습은 '변호사의 작업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당위의 부정성으로 밤낮으로 일하다가 노동의 생산성이 일정한 지점에 이르러 한계를 드러낸 결과로 해석해야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세 번째 단락에 따르면 규율 사회에서는 생산성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당위의 부정성은 그 이상의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다고 하였다. 또한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규율 사회의 부정성이 광인과 범죄자를 낳는다고 하였다. 〈보기〉에 따르면 바틀비는 감옥 같은 사무실에서 일만 하다가 결국 일을 거부하고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노동과 음식을 거부하다 아사한다. 이로 보아 무력하고 무감각한 상태의 바틀비는 자본주의 사회, 규율 사회의 생산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인물로 볼 수 있다.

② 첫 번째 단락의 "병원, 정신병자 수용소, 감옥, 병영, 공장으로 이루어진 푸코의 규율 사회"와 〈보기〉의 "법률 사무소의 사면은 오래되고 그늘져서 검게 변한 높은 벽돌벽에 둘려 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답답한 사무실"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제시문의 관점에서 보면, 바틀비를 병들게 한 것은 규율 사회의 '당위의 부정성' 때문이다. 과도한 긍정성은 성과 사회의 능력의 긍정성과 관련된다.

20. 정답 ③

해설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 '깃들어'은 문맥상 '감정, 생각, 노력 따위가 어리거나 스미어'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침잠(沈潛)하다'는 '마음을 가라앉혀서 깊이 생각하거나 몰입하다'의 뜻이므로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 '갈라놓다'은 문맥상 '각각 떼어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구별(區別) 짓다'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다'는 의미이므로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② ㉡ '일어나다'는 문맥상 '어떤 현상이 발생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발생(發生)하다'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다'의 의미이므로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④ ㉣ '숨다'는 문맥상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다. 또는 잠재되어 있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잠재(潛在)하다'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잠겨 있거나 숨어 있다'의 의미이므로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21. 정답 ②

해설

(가)는 이규보가 지은 영웅 서사시 〈동명왕편(東明王篇)〉의 서문이다. 〈동명왕편(東明王篇)〉은 고구려의 건국 신화인 주몽 신화를 노래한 것이다. 네 번째 단락을 보면, 글쓴이는 《구삼국사》에 실린 〈동명왕본기〉를 여러 번 읽으면서 "이것은 황당한 것이 아니요 성스러운 것이며, 괴상한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것이었다. 하물며 나라 역사의 정직한 필치에 무슨 거짓이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우리나라가 창건되던 때의 역사에 거짓된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22. 정답 ①

해설

㉠은 <한글 맞춤법> 제40항 〔붙임2〕에 해당하는 예로 '생각건대'가 바른 표기이다. 어간의 끝음절 '하'의 앞에 안울림소리가 있으면 '하'가 탈락된다.

오답 풀이

② '후대(後代)'는 <한글 맞춤법> 제30항 3.에 해당하는 한자어가 아니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23. 정답 ③

해설

(나) <산성 일기>는 병자호란 당시 인조를 모신 어느 궁녀가 쓴 일기체 수필로, 남한산성에서의 항쟁 및 청나라와의 굴욕적 외교가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청군이 화친을 제안하지만 수락하지 않다가 전세가 불리해지자 조정에서 적군에 세찬을 보내 화친을 도모하는 상황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을 뿐, 글쓴이가 척화론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즉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기록할 뿐, 사건에 대한 글쓴이의 주관적 판단은 나타나지 않는다.

24. 정답 ③

해설

26일의 일기를 보면, 이경직이 세찬(술과 고기)을 가지고 적진에 가자 적장이 자신의 군중에는 먹을 것과 재물이 넘쳐 나니 오래 굶주린 네 나라 군신들이 쓰라면서 거절했다고 하였다. 즉 적장은 조선의 군신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의미에서 술과 고기를 되돌려 준 것이다.

25. 정답 ③

해설

22일의 일기를 보면, 적장이 통역사를 보내 세자 대신 다른 왕자와 대신을 볼모로 보내는 조건으로 화친을 하자고 제안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군이 아무 조건 없이 화친을 하자고 제안한 것은 아니다.